

<2014.12.18.~2014.12.22.>

전북중앙신문

2014년 12월 19일 (금)
지역 10면

고창군, 용계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고창군은 지난 16일과 17일 용계마을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주)트래블러스맵변형석 대표의 “관광 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고창=김준완기자

68 X 89 mm

전민일보

2014년 12월 19일 (금)

지역 09면

용계마을 주민역량 강화 교육

고창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6일과 17일 이를 동안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 립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의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성완 용계마을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운곡습지와 더불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서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용계마을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생태관광을 실현,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면 용계마을은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67 X 170 mm

전주매일

2014년 12월 19일 (금)

지역 11면

고창군, 용계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6일과 17일 이를 동안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의 '관광 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 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성완 용계마을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운곡습지와 더불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서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용계마을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생태관광을 실현,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산면 용계마을은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주민 스스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 락 매 일

2014년 12월 19일 (금)

지역 09면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주민교육

고창군은 지난 16일과 17일 이를 동안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의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 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박동현 기자

55 X 127 mm

진북언합신문

2014년 12월 19일 (금)
지역 10면



고창 용계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역량교육

고창군은 지난 16일과 17일 이를 동안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의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성완 용계마을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운곡습지와 더불어 마을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국에서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용계마을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고창 용계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용계마을 우리술학교에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습지보호 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이 강사와 소통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은 (주)공정여행 풍덩 박종석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이루 어졌다. 둘째 날은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의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성완 용계마을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곡습지와 더불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서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용계마을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배아림 기자

91 X 104 mm



전국 >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용계마을 주민에 '생태관광 활성화 교육'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12.18 14:14:24 송고

전북 고창군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주민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박종석 (주)공정여행풍덩 대표의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과 박승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변형섭 (주)트래블러스랩 대표의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문두현 지역관광 마케팅연구소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성완 용계마을 이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운곡습지와 더불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국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생태관광을 실현,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면 용계마을은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아산면 용계마을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영구보존방안 등 논의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주변 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첫 날은 '생태관광의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종석(공정여행 풍덩)대표의 강의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관

리공단 박승기 담당관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 졌으며, 둘째 날은 '관광산업 전망과 공정여행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란 각각의 주제로 변형석(트래블러스랩)대표와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 문두현 소장의 강의로 교육이 실시 되었는데 강의의 주된 내용은 주민소득의 증대 방안 및 지역경제활성

화 방안,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의 영구 보존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였다. 한편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된 용계마을 이장(김성완)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천혜의 보고인 운곡습지를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김병현 기자



고창군은 운곡습지 주변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했다.